



위생만점 & 뛰어난 맛 사랑하는 팩커피자판기 등장

# 커피자판기의 새로운 영역을 연다



‘청소와 관리 걱정이 필요 없다.’ ‘뛰어난 맛의 원두커피가 제공된다.’ ‘고객에게 위생에 대한 신뢰까지 준다.’ 이런 장점을 가진 커피자판기가 등장했다. (주)에이알티커피컴퍼니에서는 국내 최초로 팩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자판기를 선보이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커피자판기들과는 완전 차별화한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팩커피는 어떤 커피?

(주)에이알티커피컴퍼니(대표이사 : 최희소)의 주사업 아이템인 팩커피는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다. 브랜드 명칭은 ‘플라비아(FLAVIA) 필터 팩’이다. 이 제품은 마시는 순간까지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질소충전 필터 팩을 사용한다. 마감시 공기를 빼고 질소를 넣기 때문에 커피의 산화가 방지되어 맛이 오래 동안 유지된다.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다.



▲ 미니 팩커피 자동판매기

모든 플라비아 필터팩에는 특별한 필

터와 한잔의 음료를 만들 수 있도록 신선한 정량의 분쇄 커피와 잎차가 들어 있다. 제품 종류는 13가지에 달하는데 원두커피로는 아메리칸 파인 셀렉트, 스무스 로스트, 프리미엄 마일드, 모카 블랜드, 케냐, 에스프레소 로스트, 수마트라, 헤이즐릿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스무스 로스트는 엄선해서 중간 세기로 로스팅한 커피로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맛을 제공한다. 아메리칸 파인 셀렉트는 약간의 과일향을 섞어 부드럽게 볶은 아라비카 커피를 제공한다. 커피 외에도 레몬밤, 라즈베리 스파크, 페퍼민트 쿨 등의 웰빙 음료도 있다.

플라비아 필터 팩 제품은 장점은 향과 맛이 변함이 없는 고품질의 음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항상 청결하게 신선도가 유지가 되며 맛이 섞일 위험도 없다.

이러한 팩커피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대중화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생소한 제품이다. 에이알티커피컴퍼니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의 팩커피는 어떻게 마실까? 사람이 자체적으로 개봉해서 타먹은 방식이 아니다. 플라비아 필터 팩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FLAVER CREATION 400이라는 드링크 스테이션이 필요하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원하는 음료와 물의 양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팩 주입구가 열리고, 팩을 넣으면 자동으로 차가 추출되는 시스템이다. 시간은 34초 정도가 소요된다. 새로운 음료 제어 및 공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고의 맛과 향을 극대화함으로써 뛰어난 풍미를 제공한다. 커피를 만드는데 최적의 온도(92°C)를 확보한다.

### 왜 팩커피를 자판기를 통해 팔게 되었나

이렇게 세트화된 제품시스템에서 어떻게 자판기 시스템이 개발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차로 개발된 팩 커피자판기 제품은 미니 타입이다. 이 제품은 기존 시스템이 가지는 한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게 되었다. 주로 플라비아 필터 팩은 사무실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 직원들에서 공짜로 팩커피를 타먹게 하다 보니 MD 케이스를 열고 팩커피를 집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팩커피 하나의 단가가 600원에 달하는 만큼 이런 로스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

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릴리프로 등장한 것이 자동판매기 방식이다. 직원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넣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300원을 부담하고, 직원들은 300원 부담하는 식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자동판매기 타입은 또 광범위한 로케이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어서 영업용기기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기존 MD 케이스 방식은 누구나 팩을 꺼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자가 있는 곳 이외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런 니즈에 의해 개발된 팩 커피자판기는 아직은 완전 자동방식은 아니다. 자판기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꺼내 드링크 스테이션에 넣어서 커피를 뽑아 마실 수 있다. 사람이 2차 이용과정을 거쳐야하는 반자동 방식이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방법이 복잡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이 설치되는 곳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 공간이 아니다.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금방 익숙해진다. 실제로 사무실에 설치된 팩커피자판기는 인기가 좋은 편이다.

제품기능은 단순히 제품을 적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심플하다. 한글 LCD 장착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배가했고, 관리자를 위한 매출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우드 디자인을 채택했



▲ 최희소 사장

위생적이고 관리가 편리하고, 필터 팩 자동방식이다보니 기존 자판기가 가지는 위생문제로부터 자유롭다. 팩커피를 자판기 내에서 자동추출해 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고, 수제작으로 인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에이알티커피컴퍼니에서는 1차 보급 물량으로 60여대를 생산해 필드에 전개하고 있다. 렌탈 방식을 통해 로케이션을 확대하고 있는데 돈쓰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상위 계층들이 모이는 장소가 주타겟이다.

**대형 팩커피자판기 개발 중,  
출시되면 큰 시장 반향 예상돼**

반자동 방식의 제품을 전개하다 보니 또 새로운 니즈가 생겼다. 반자동 방식이라 사용이 번거롭다보니 완전 자동방식 자판기의 상품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에이알티커피컴퍼니 최희소 사장은 “전자동 방식의 대형 커피자판기로 만들면 개척할만한 시장이 무척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는데 2~3개월 있으면 1차 제품이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전 자동방식의 팩커피자판기가 관심을 끄는 것은 커피자판기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존 인스턴트커피자판기, 원두커피자판기와는 차별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생적이고 관리가 편리하고, 필터 팩 자동방식이다보니 기존 자판기가 가지는 위생문제로부터 자유롭다. 팩커피를 자판기 내에서 자동추출해 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내용상품에 있어서는 웰빙 제품이라는 점도 기존 커피자판기와는 차별화 요인이다. 커피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팩커피의 적정가는 1000원선이다.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맛이 뛰어나고 고급스럽다. 8온스 컵에 커피가 제공되고 뚜껑과 스틱까지 제공된다. 한마디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지향했다. 자판기를 통해 테이크아웃 수준의 커피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 제품 컨셉이다.

앞으로 출시된 대형 팩커피자판기는 소비자를 500~600만원 대로 맞출 예정이다. 제품이 본격 출시되며 시장 파급력이 무척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소 사장은 “이 제품은 기존 커피자판기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면서 “소비자의 웰빙 성향에 부응하는 자판기로서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팩커피자판기 시장 발전을 위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가졌으면 바램을 밝혔다.

“제품 컨셉을 참신하고 시장성도 좋지만 문제는 자판기 시장을 잘 모르고 유통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다. 자본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사업 노하우가 있는 업체라면 적극적인 제휴도 진행하고 싶다.”

과연 앞으로 출시된 대형 팩커피자판기가 어떤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 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커피자판기와는 차별화한 새로운 방식의 자판기라는 점에서 기대 역시 크다. 혜성같이 등장해 답답하리만큼 침체된 기존 시장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주길 기대 본다.

■ (주)에이알티컴퍼니 : 02-953-0061

www.atrading.co.kr

